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윌리엄 포크너의
『내 누워 죽어갈 때』의 노동 가치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강 희 준

2021년 8월



윌리엄 포크너의 『내 누워 죽어갈 때』의 노동 가치




지도교수 임 정 명

강 희 준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강희준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영희 
위 원 진성은 
위 원 임정명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6월

William Faulkner's Value of Labor
in *As I Lay Dying*

Kang Heejun

(Supervised by Professor Lim Jungmy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hilosophy

August. 2021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1. 서론	1
2. 애디의 죽음과 포크너의 노동 가치	3
3. 마르크스의 소외론	7
4. 자본주의적 노동과 소외 극복	12
5. 인본주의적 노동과 소외 극복	21
5.1 사례 1: 바더만	21
5.2 사례 2: 달	27
5.3 사례 3: 주얼	33
6. 결론	43

윌리엄 포크너의 『내 누워 죽어갈 때』의 노동 가치

1. 서론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가 소설을 집필했던 20세기 초는 미국 남부의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사회구조에서 급격한 근대화로의 과도기적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들을 목도했던 포크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다. 존 매튜스(John T. Matthews)는 포크너의 “삶은 움직임이다”라는 예술적 철학과 관련하여 “작가의 목표는 그러한 움직임을 읽어내고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움직임으로 유도하는 것이다”(Matthews 20)라고 평하였다. 당대 남부사회에 대한 포크너의 인식은 개인의 움직임인 동시에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으로부터 움직임을 읽어내는 작업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리처드 그레이(Richard Gray)는 포크너의 “위대한 작품들인 『음향의 분노』(*The Sound and the Fury*)와 『햄릿』(*The Hamlet*)과 같은 소설들은 과거 남부사회경제의 혁명과 관련된 작품들로서, 저임금과 전통적 농업사회의 노동의 집약성 등으로부터의 일련의 움직임”(Gray 59-60)을 보인다고 논했다.

이렇듯 당시의 남부사회의 농업과 노예로 대표되었던 19세기의 미국 남부의 전통과 사회구조는 급격히 근대화, 산업화되어가며 필연적인 시대의 변화를 요구 받게 된다. “성관습으로부터의 자유화, 화려한 영화산업과 문화적 다양성, 광고와 출판지의 영향력 상승, 그리고 개인농장의 축소화와 더불어 지역산업화의 발전 및 임금노동의 증가”(Matthews 21)로 상징되는 시대를 마주한 포크너의 의식은 분명히 필연적인 부의 재배열과 계급의 전복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남부의 중심부”¹⁾로부

터 출발했다. 그렇게 출발한 포크너의 의식으로부터 집필된 소설 『내 누워 죽어갈 때』(*As I Lay Dying*)를 통해 과도기적 사회구조 속에서 발현되는 “노동”이라는, 인류와는 필수불가결의 성질을 지닌 행위에 대한 포크너의 인식을 논해보고자 한다. 노동과 관련한 개념의 정의는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그의 저서 『자본론』(*Capital*)의 1권에서 논했던 인간에게 있어서의 “노동”의 의미로부터 착안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노동을 통해 사용가치의 생성이 이루어 질 때, 그것은 곧 유용한 노동이며, 인류의 존재를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노동은 영원한 자연그대로의 필연성으로써 이것 없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그 어떠한 물질적 교환체계도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이 없이는 어떠한 삶도 존재할 수 없다.

So far as labour is a creator of use-value, is useful labour, it is a necessary condition independent of all forms of society for the existence of the human race; it is an eternal nature-imposed necessity, without which there can be no material exchanges between man and nature, and therefore no life. (Marx 42-3)

『내 누워 죽어갈 때』에서도 노동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삶 속 필수요소로서 자리 잡아있다. 소설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누울 관”(5)을 제작하는 광경으로 시작된다. 이 작품은 관의 주인이 될 애디 번드런(Addie Bundren)의 죽음을 중심사건으로 진행되는 소설로서 장례여정 속 일련의 과정들과 이를 둘러싼 번드런가(The Bundren Family)의 식구들의 이야기이다. 『내 누워 죽어갈 때』는 애디의 남편인 앤스 번드런(Anse Bundren)과 자식들인 장남 캐쉬 번드런(Cash Bundren), 딸 번드런(Darl Bundren), 이부형제(異父兄弟)인 주얼 번드런(Jewel Bundren), 유일한 딸인 듀이 델 번드런(Dewey Dell Bundren) 그리고 막내인 바더만 번드런(Vardaman Bundren)과 주변 인물들의 의식과 노동의 양상들로 구성된다.

1) William, Faulkner. *As I Lay Dying*. (New York: Vintage. 1991) p. 21.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본문 속에 쪽수만 표시 한다.

각 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 가치의 전달은 이 소설에서 포크너의 중심사유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시작부터 애디가 누워서 죽어 가고 있는 설정부터가 그 자체로 노동의 일환으로 해석이 된다. 도린 파울러(Doreen Fowler)는 포크너의 『내 누워 죽어갈 때』와 관련하여 “제목이 소설의 중심 주제를 요약하면서 죽음과 관련시켜 삶을 규정”(Fowler 23)해나간다고 논했다. 이러한 포크너의 의도는 소설 속 유일한 애디의 챕터 속 과거의 그녀의 의식 안에서 명백히 보여진다. 애디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한다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169)이라고 고백하는 스스로의 의식을 통해 그녀의 죽음과 삶의 병렬적 관념의 대립에 대한 인식은 결국 삶 자체로써 이미 끊임없는 죽음의 준비과정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런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그녀의 장례여정은 죽기 이전부터 지속되던 애디의 노동의 마무리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이 여정을 행하는 주변 인물들이 “애디의 죽음이 움직이고 노동을 하는 이유”(Marc Hewson 556) 곧 포크너의 의식이 투영된 당시 변화되어가는 남부사회의 노동의 가치를 드러낸다.

등장인물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노동은 크게 자본주의적 노동과 인본주의적 노동의 형태로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노동의 형태라고 한다면 주어진 노동과 자본 및 사유재산이 뒤따르는 구조로서 물질적 대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인본주의적 노동은 물질적 대가가 뒤따르지 않는 형태로서 자기희생적 행위를 통한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해가는 노동을 일컫는다. 이는 사유와 희생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노동이 더해진 형태로서 자본주의적 노동과는 명백히 차별화되는 궤를 가진다. 이러한 노동의 형태에 따른 『내 누워 죽어갈 때』 안에서 드러나는 포크너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소설로부터 드러나는 포크너의 본질적인 노동 가치로서의 자본주의적, 인본주의적 노동관관 더불어 확장적용 가능한 문제점인식과 포크너만의 해답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애디의 죽음과 포크너의 노동 가치

자본주의적 형태로서 포크너에게 지명된 노동은 결국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인간의 의식주를 형성하는 근간에는 “노동”을 통한 생산성의 부재로는 지탱될 수 없는 구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미 문명의 시작부터 수렵과 농업 등의 기원들로부터 근현대에 들어서서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노동이란 결국 생산, 구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생산을 의미한다. 형태와 대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스스로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인간에게 그가 행한 노동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원론적 형태의 상관관계는 지속된다. 포크너에게 있어서도 노동이라는 행위 가치는 결국 “움직임”을 바탕으로 삶을 유지, 영위해가는 실천을 통해 이전보다 생산성을 높이며 대가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포크너가 『내 누워 죽어갈 때』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노동 가치의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소설의 중심에 존재하는 애디의 노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애디는 소설 속에서 주체적 노동자의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여성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내 누워 죽어갈 때』가 당대 남부시골여성의 주목할 만한 정형”(Bergman 400)의 예시로서 등장하고 있다. 포크너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시발점은 소설의 제목에서부터 전해지는 죽음으로의 여정, 즉 애디 죽음과 장례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내 죽어 누워있을 때』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애디의 사망 직전의 수일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소설의 초반부에서 애디는 생을 마감하게 되고(48) 그 뒤로는 애디의 챕터를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애디는 주변 의식 및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애디의 죽음은 애디라는 존재의 본질적 소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는 살아감의 이유는 곧 죽음에 이르기 위한 준비에 있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난 아버지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신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유인즉 남자란 일이 끝난 뒤, 집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에 말이다. 하지만 난 나의 집을 청소했다. [...] 그리고 난 죽을 준비를 다할 수 있었다.

My father said that the reason for living is getting ready to stay dead.

I knew at last what he meant and that he could not have known what he meant himself, because a man cannot know anything about cleaning up the house afterward. And so I have cleaned my house. [. . .] And then I could get ready to die. (175-6)

애디는 아버지로부터 “죽음”이라는 관념을 모든 생명체에게 필연적인 생물학적 죽음과는 다르게 인식해나가는 태도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그에 더해 죽음의 인식을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더욱 구체화해나가는 자세를 보인다. 애디는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일이 끝난 뒤”, 즉 삶이라는 커다란 생물학적 사이클의 죽음 뒤에는 그 사이클로부터 파생되는 흔적들을 “청소”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의 죽음 뒤의 “장례여정”이라는 추가적인 노동과정의 계획을 해 놓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보편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삶 속 노동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일편 생보다 죽음으로 구성된 노동의 형태를 선호하며 삶에 대한 의지로부터 “죽을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소설의 제목이 애디가 “누워있을 때”라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포크너는 애디의 죽음과 관 속에 누운 채로 본인의 생전 희망대로 제퍼슨(Jefferson)을 향해 가는 애디의 죽어있는 상태, 즉 장례여정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제퍼슨이라는 가상의 도시는 비단 『내 누워 죽어갈 때』에만 등장하는 장소가 아니다. 포크너의 복수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가상의 지명이자 “소설의 배경인 동시에 가족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장치”(Minter 94)로서 그는 “하층민의 삶속에서의 감성적 요소들을 통해 제퍼슨내 가족들의 사회적 요소들을 탐구”(Minter 108)하기 위한 노력을 소설들 안에서 이어갔다. 애디의 죽음과 더불어 그녀가 의도했던 제퍼슨으로의 장례여정이라는 구성은 결국 단순한 공간적 이동과 노동의 표면적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애디 내면으로부터의 사유의 구체화를 위한 장소인 동시에 작가인 포크너의 노동의 가치관이 투영된 현실반영적 공간인 “제퍼슨”으로의 여정으로도 볼 수 있다.

생전의 애디는 당시의 사회인식 속, 여성으로서 행해야 했던 “임신”이라는 형태의 노동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캐쉬를 임신”(171)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삶을 사는 것이 끔찍하다”(171)라고 생각했으며 “임신을 그 증거”(171)라

는 사유를 보였다. 이러한 애디의 회의적 태도는 둘째인 달의 임신과 함께 더욱 가증된다. 달을 임신한 사실을 깨달자 애디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으며, 앤스를 “죽이고 싶어”(172)하는 사유를 보이며 앤스가 자신을 통해 노동자화시키려 했던 자본가로서의 도구와 다름없던 “임신”이라는 노동을 극도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애디에게 어릴적부터 지녀왔던 죽음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앤스를 향한, 자본가를 향한 노동자로서의 복수를 계획한다. “복수를 숨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173)생각했던 애디는 자신의 사후 “제퍼슨에 물어달라는 부탁”(173)을 하는 동시에 남편인 앤스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존재”(173)라고 생각했다.

버젓이 살아있는 앤스를 두고 죽어있는 사람이라 여긴 애디의 사유는 곧 인간의 육체적 죽음보다도 정신적으로 몰락해 버린 상태에 대한 상징적 죽음에 무게감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런 앤스의 몰락해버린 정신은 곧 노동의 부재, 비노동자의 작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애디가 자신의 관을 가까운 장소의 가족묘지가 아닌 40마일이나 떨어진 제퍼슨에 물어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앤스는 관을 옮기기 위한 장례여정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소설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애디의 육신의 죽음과 그 죽음의 마무리를 위한 매 순간들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삶 속에 노동이 부재된 앤스로 하여금 강제적 노동을 촉구하는 애디의, 그리고 포크너 작가 자신의 사유의 시발점인 것이다. 동시에 애디라는 존재는 노동자의 일환으로서 자본가인 앤스로부터 끊임없이 자행되는 노동자화로의 강제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본주의적 노동을 보이며 앞선 애디의 사유와 같은 “청소”(175)를 통한 “죽을 준비”(176)를 완료해내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설 속 대표적 노동의 가치를 내포하는 인물로서의 충실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포크너의 사유, 즉 애디의 죽음으로부터 인식되어지는 포크너의 노동 가치는 애디의 죽음,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는 그녀의 존재를 둘러싼 인간 삶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이를 통해 소설 내적으로는 번드런가 사람들의 성장을, 외적으로는 번드런가 사람들로 대표되는 남부사회 속의 사람들의 노동을 통한 인격적 성장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즉 “말하는 시체의 이야기책”(Matthews 144)으로서 애디의 의식은 제목에서부터 생물학적으로는 시체의 상태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인물들의 의식의 내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노동 가치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노동을 실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포크너의 노동 가치이자 이를 위

한 의지이기도 한 애디의 의지는 그녀의 자식들, 번드런가의 자식들에게서 발현되게 되며 이는 곧 남부사회를 위한 “움직임”을 유도해내며 포크너의 노동 가치를 대변해주는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

3. 마르크스의 소외론

번드런가의 자식들로부터 파생되는 포크너의 노동에 대한 가치 분석에 앞서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적 사회구조의 배경, 즉 초기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주의화에 동반되는 부작용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필연적이었던 현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번드런가의 가족구성원 내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화된 계급화와 같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단순한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 앤스와 그 자식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초기산업사회에 빈번했던 노동자들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소외론”(Marx 47)의 정의가 필요하다. 소설 속에서 애디라는 노동자를 애디라는 개인이 아닌, 여성이자 아내의 고착화 되어있는 “임신”이라는 노동을 통해 노동자화를 추구해가는 자본가이자 인본주의적 노동을 실시하는 애디와는 대비되는 비노동자로서의 위치를 대변하는 앤스라는 인물은 애디를 비롯한 가족 전원을 그저 자신의 위치로부터 비롯한 자본의 희생양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앤스는 이 글을 통해서 추후 분석해갈 번드런가가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노동을 통한 대가들을 자본가인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착취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소외론적 관점으로부터 바라본 19세기 초 중반의 계급화 되어 있던 사회상을 정확히 재현한다. 앤스라는 인물은 시종일관 소설 안에서 무노동의 태도로 일관한다.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의, 즉 가족들의 노동으로부터의 대가를 착취하려는 태도마저 보인다.

의사가 왔으니 내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내게는 이빨도 없는데 말이다. 사정이 나아진다면 바로 나가서 틀니를 해 넣을 생각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신이 허락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을 터인데 말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아내가 시골의 여느 여자들처럼 건강하기만을 바랬는데.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할 것이다. 3달러를 버는 일이니. 아이들이 그 돈을 벌기위해 일하러 간만큼은 내가 견뎌야 할 일인 것이다.

And now I got to pay for it, me without a tooth in my dead, hoping to get ahead enough so I could get my mouth fixed where I could eat God's own victuals as a man should, and her hale and well as ere a woman in the land until that day. Got to pay for being put to the need of that three dollars. (37)

가부장의 위치로서 자본가계급의 상징을 대변했던 앤스의 틀니는 앤스의 자식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부장으로부터의 소외를 야기하고 낯선 존재로 변모시키는 기능(Harding 63)을 수행한다. 결국 앤스는 스스로의 욕구를 위한 수단으로써 초기 자본주의 사회 속 수많은 자본가들이 보였던 “착취”라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본가의 전형으로 해석된다. 앤스는 결국 자신의 욕망인 틀니의 구입을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노동도 하지 않는 비노동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식들의 노동만을 촉구할 뿐이다.

이러한 앤스의 행위는 사회적 계급 속 우위를 점하는 자본가의 위치에 기반하며,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19세기 급격하게 파생되던 자본주의 및 자본가들의 착취를 수반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변하는 과도기적 사회구조하의 노동자계급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던 부작용들은 당시를 목도하던 포크너의 시선에는 남부 사회의 필연적 현상인 동시에 개별적 노동의 가치형성과 관련한 사유로의 구체화 과정이 함유되었던 것이다. 사유와 구체화 과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달랐지만, 포크너의 이러한 사유는 한 세기전의 마르크스의 “소외론”이라는 사유와 궤를 같이 한다.

첫째로 노동은 노동자에게 외재적이라는 점이다. 즉, 노동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의 일에서, 노동자는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함을 느끼며, 그의 육체적, 정신적 힘을 자유로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체를 억누르며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그의 일로부터 벗어나고자 느낄 따름

이며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느낀다. 그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일을 할 때에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 즉 강요된 노동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필요의 충족이 아니다. 단지 그것은 그것 밖에 있는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다.

First, the fact that labor is external to the worker, i.e., it does not belong to his essential being; that in his work, therefore, he does not affirm himself but denies himself, does not feel content but unhappy, does not develop freely his physical and mental energy but mortifies his body and ruin his mind. The worker therefore only feels himself outside his work, and in his work feels outside himself. He is at home when he is not working, and when he is working he is not at home. His labor is therefore not voluntary, but coerced; it's forced labor. It is therefore not the satisfaction of a need; it is merely a means to satisfy needs external to it. (Marx 72)

자본가라는 존재가 절대적 권력과 같이 인식되었던 초기 산업주의사회 속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현상을 이와 같이 정의했다. 자본주의의 범람으로부터 착취당해가던 노동자들의 대변을 위해 여러 관점의 사회적 현상을 연구했던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해 “신장의 발육부진, 구부러진 등, 뒤틀린 손가락, 창백한 안면 등”(Marx 349)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자본가로부터 노동의 착취만을 강요당하며 어떠한 형태의 복지도 기대할 수 없었던 당시 노동자들과 관련된 시대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자본가의 “신체의 단순한 파편”(Marx 360)인 동시에 “살아있는 기계의 한 부품”(Marx 484)에 불과했던 노동자들의 노동은 자연스럽게 소외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위한 노동의 목표설정이 불가능했다. 즉, 애디의 “매장”을 위해 행해졌던 장례 여정이라는 노동의 과정 속에서 앤스의 “틀니”라는 자본가의 욕구를 위해 착취되었던 노동자들인 자식들은 자신들의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야기되었던 동시에 외재성에 노출되게 되며 노동을 진행해가면 갈수록 심신의 황폐화를 경험하

는 것이다.

앤스는 가부장으로서의 위치를 활용하는 정신적 자본가로서의 태도를 명백히 보인다. 그리고 자식들로 하여금 노동을 강요하는 착취의 형태를 보이는 앤스의 모습은 마르크스의 소외론적 개념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관을 제작중인 캐쉬와 어머니가 죽음을 목전에 두었음에도 묵묵히 노동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길을 나선 달과 주얼”(17), 그리고 어머니의 곁에 앉아 “끊임없이 부채질”(25)을 해주는 듀이델, 가족의 먹거리나 다름없는 물고기를 낚아와 무릎이 “피투성이”(38)가 될 정도로 손질하는 어린 바더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와중에도 자본가인 앤스는 오로지 가만히 앉아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는 투정만 늘어놓는다 주변 인물들에게 있어서 자발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가족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각 노동들의 대가가 결국에는 “앤스의 틀니를 위해 사용될 것”(37)이라는 앤스의 대사를 통한 암시는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닌,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마르크스의 소외론과도 일치하는 사회구조모델의 축소판으로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노동자들의 강요된 노동 및 그에 따른 노동의 외재성으로부터 비롯된 당시 남부사회의 사회적 변화의 단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소외론 개념은 좀 더 확장적용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 단순한 노동의 외재성 외에 그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소외”(Marx 73)에 대하여 논하였다.

노동자가 노동에 매진하면 할수록,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질적인 객관적 세계의 영향력은 강하게 반발하도록 하며, 자신 - 내면의 세계 - 을 더욱 빈곤해지게 되어 결국에는 자신에게 소속되어 남게 되는 것은 적어지게 된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삶을 대상을 위해 부단히 쏟아내지만, 결국 그 삶은 노동자 본인의 것이 아닌, 대상의 소유가 된다. 그 결과로서 이러한 활동이 증대되면 되어갈수록 노동자의 대상의 상실은 커져간다.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의 생산물이 무엇일지라도, 그 생산물은 더 이상 노동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생산물이 증가하게 된다면 노동자 자신은 점점 초라해지게 된다.

the more the worker spends himself, the more powerful the alien

objective world becomes which he creates over-against himself, the poorer he himself - his inner world - becomes, the less belongs to him as his own. ... The worker puts his life into the object; but now his life no longer belongs to him but to the object. Hence, the greater this activity, the greater is the worker's lack of objects. Whatever the product of his labor is, he is not. Therefore the greater is this product, the less is he himself. (Marx 70)

생산물과 노동자와의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소외현상은 소설의 결말부분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잘 드러난다. 번드런가의 인물들의 장례여정이라는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집단적 핵심노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적 노동의 결과로서 애디의 “매장”과 더불어 무노동으로 일관했던 앤스의 “틀니”(260)와 “새로운 부인”(261)뿐이기 때문이다.

“저게 누구요?”

아버지가 달리 보인 이유는 손가방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 때문이었다. 주얼이 말했다. “이빨을 새로 했구만.”

사실이었다. 이빨을 새로 바꾼 아버지는 1피트는 더 커보였고 고개도 당당히 핀 듯 보였으며 동시에 더욱 겸연쩍은 인상을 줬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에 손가방을 들고 선 한 여자가 보였다. [...] 그 여자는 아버지 뒤로부터 나와 당당히 우리를 내려 보았다. 그런 그녀의 손에는 축음기가 들어있는 손가방이 들려있었다. [...]

“이쪽이 캐쉬, 주얼, 바더만 그리고 듀이델이오.” 아버지가 소개했다. 겸연쩍어 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였으며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이제 틀니를 얻었고, 모든 것을 얻었다. “소개하마. 번드런 부인이란다.” 아버지가 말했다.

“Who's that?”

Then we see it wasn't the grip that made him look different; it was his face, and Jewel says, “He got them teeth.”

It was a fact. It made him look a foot taller, kind of holding his head up, hangdog and proud too, and then we see her behind him, carrying

the other grip [. . .] her coming around from behind pa, looking at us like she dared ere a man. And then I see that the grip she was carrying was one of them little graphophones. [. . .]

“It’s Cash and Jewel and Vardaman and Dewey Dell,” pa says, kind of hangdog and proud too, with his teeth and all, even if he wouldn’t look at us. “Meet Mrs Bundren,” he says. (260-1)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 즉 번드런가의 자식들의 노동으로부터 앤스라는 자본가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만을 위한 생산물의 “응결화되고 물질화”(Ollman 141)로 귀결되면서 결국에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은 “객체화”(Marx 69)되고 만다. 결국 소설의 전반에 걸친 번드런가의 자식들이 행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은 앤스의 틀니를 사기 위한 생산 활동이 되며, 애디 “번드런”의 장례여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인본주의적 노동들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번드런 부인”을 위한 희생으로서 “객체화”과정으로 연결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크너는 분명히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발현되는 노동의 소외들로부터 탈피하여 그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를 파악하고 당시의 사회상에 적용 가능한 이상향을 추구하며 소설을 집필하였다.

4. 자본주의적 노동과 소외 극복

노동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크너가 드러내고 있는 노동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을 위한 노동이라는 노동의 원론적 기능에 집중해본다면, 근현대에 있어서 노동이란 자본을 위한 노동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노동자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을 동반한 행위를 통해 물질적 결과물을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번드런가의 둘째인 달의 말의 경우를 보면 노동과 그에 따른 자본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적 노동의 사례가 명백해진다. 달은 어머니 애디 번드런의 임종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3달러라는 실질적인 금액의 돈을 위해 일을 하러 집을 떠나려한다. 앤스의 말을 통해 애디의 임종을 지키지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달은 더욱 필요하다는 답변을 통해 노동에 대

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너희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머니가 버티지 못한다면, 무척이나 실망하실 꺼다.” 아버지는 말했다.

버논은 먼지 위로 침을 뱉었다. 하지만 내일은 아침 전에 비가 올 것이다.

“너희 어머니는 그 마차를 기대하고 있어. 눈을 감자마자 바로 일을 치르고 싶어 할 거다. 난 그녀를 잘 알아. 난 애디와 사전에 준비를 잘 해 놓기로 약속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분명 기대할거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에게는 그 3달러가 필요하겠네요.” 나는 말했다.

“But if she dont last until you get back,” he says. “She will be disappointed.”

Vernon spits into the dust. But it will rain before morning.

“She’s counted on it,” pa says. “She’ll want to start right away. I know her. I promised her I’d keep the team here and ready, and she’s counting on it.”

“We’ll need that three dollars then, sure,” I say. (17)

어머니가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위해 먼 길을 나서려 하는 달과, 아내인 애디의 죽음이 목전에 이른 순간에도 비생산적인 말을 이어나갈 뿐인 앤스의 대화에서 무엇하나 스스로 노동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앤스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위선적 무노동의 자가당착적 작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달은 그런 앤스의 무책임함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달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영구적 작별의 가능성이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현실적 상황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동시에 인식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자본주의적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 앤스는 22살의 나이에 야외에서 일하던 중 일사병을 앓았던 뒤로 입버릇처럼 “다시 땀을 흘린다면 난 분명 죽을 것이다”(17)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를 통한 무노동으로의 귀결을 보이는 반면 달은 앤스와는 명백히 차별화되는 노동의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3달러”라는 구체적인 대가를 수반하는 노동의 당위성을 구체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통해 노동의 소외로부터 자유로운 인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의 도입부에서부터 달과 앤스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들어나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노동의 성질을 관찰시키는 달의 철학은 곧 포크너의 사유를 강력히 투영한다.

자본주의 노동의 중요성은 비단 달 뿐만 아니라 다른 번드런가의 자식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차남인 주얼의 자본주의적 노동은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순수성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얼은 절대로 “불로소득”과 같은 노동이 부재된 자본의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체적 가치관이 내입된 인물로서 묘사된다. 이러한 주얼의 성격은 장례여정이 시작된 뒤, 방문하게 되는 샘슨(Samson)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둘의 대화를 통해 잘 들어난다.

그 소녀는 레이첼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리곤 주얼이 내게 왔다.

“여,” 내가 말을 걸었다. “헛간, 마음껏 쓰라고. 노새도, 말도 마음껏 먹이라고.”

“차라리 돈을 드릴게요,” 주얼이 말했다. 난 짚 이외의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했다.

“또 뭐가 더 필요한가? 건초나 옥수수 먹지 않아?”

“예, 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전 누구에게도 제 말의 일로 신세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애야. 그리고 헛간의 것들을 다 먹거들랑 다음날 아침에 내가 좀 더 실어주도록 하마.”

“아니요. 제 말은 누구에게도 신세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얼은 말을 이어갔다. “저는 차라리 돈을 내겠어요.”

So the girl went on to the kitchen to help Rachel. And then Jewel come to me.

“Sho,” I says. “Help yourself outen the loft. Feed him when you bait the mules.”

“I rather pay you,” he says; I thought he said extra.

“Extra for what?” I says. “Wont he eat hay and corn?”

“Extra feed,” he says. “I feed him a little extra and I dont want him beholden to no man.”

“You can buy no feed from me boy,” I says. “And if he can eat that loft clean, I’ll help you load the barn onto the wagon in the morning.”

“He aint never been beholden to no man,” he says. “ I rather pay you for it.” (116)

샘슨은 분명히 주얼을 “애야”(116)라고 지칭한다.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험한 여정을 가야만 하는 기특한 어린 아들들 중 한명에 불과해 보였을 것이다. 샘슨은 그런 소년이었던 주얼에게 호의를 기꺼이 베풀며 쉴 곳과 함께 말과 노새의 먹이를 주겠다고 제안을 한다. 하지만 일언지하에 주얼은 거절한다. 사실 거절이기 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런 주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샘슨은 노동의 부재를 상징하는 앤스와 같은 무책임한 존재인 동시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와 같은 존재로서 사회구적 문제점의 시발점으로서의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종류의 어른으로써 약자를 동정하며 호의를 베풀어주는 긍정적인 자본가들의 상징과도 같다. 그런 샘슨에게 있어서도 주얼의 철저한 반(反)불로소득적 태도는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사회구조 속 기성세대의 고정적 선도자로서의 역할에 얽매인 샘슨과는 달리 의례와도 같은 구조적 상하의 관계마저도 거절할 정도로 주얼에게 있어서 대가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본, 혹은 노동이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을 대하는 주얼의 순수성은 그의 노동으로부터의 대가이자 소중한 재산인 말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들어난다.

“말은 어디서 난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샀습니다. 킷씨에게요.” 주얼이 말했다.

“샀다고? 무슨 돈으로 말이냐? 내 이름으로 외상을 한 것이냐?” 아버지는 되물었다.

그러자 주얼은 “제 돈으로요. 제가 번 돈으로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주얼, 주얼.” 어머니도 말했다.

“주얼이 번 돈입니다. 주얼이 퀵씨가 지난 봄에 터 잡아냈던 새로운 땅 40에이커를 개간했어요. 한 밤 중에 홀로 랜턴불빛에 의지하며 해낸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비용은 오로지 주얼이 마련한 것입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horse?” pa said.

“Bought it,” Jewel said. “From Mr Quick.”

“Bought it?” pa said. “With what? Did you buy that thing on my word?”

“It was my money,” Jewel said. “I earned it. You wont need to worry about it.”

“Jewel,” ma said: “Jewel.”

“It’s all right,” Cash said. “He earned the money. He cleaned up that forty acres of new ground Quick laid out las spring. He did it single handed, working at night by lantern. I saw him. So I dont reckon that horse cost anybody anything except Jewel.” (135)

캐쉬 번드런(Cash Bundren)의 설명을 통해 드러나는 주얼의 모습은 스스로의 사유재산을 위해서, 즉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를 의식하고 고된 노동에 임함으로서 앞서 달이 보인 문제의식과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노동이었던 점과 같이 스스로의 노동만을 통한 자본의 축적, 즉 말의 구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던 주얼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얻기 위한 자본을 다른 가족구성원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대신 홀로 한 밤 중에 작은 랜턴불빛에 의지해 수개월동안 4만평이 넘는 광활한 대지를 개간한다. 말을 사겠다는 단순하지만 강한 주얼의 의지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의 형태로 발현되었고, 이와 같은 구체화된 노동에 따른 부의 축적을 통해 말을 구입한 주얼은 자본주의적 관념 속에서 노동을 통한 물질적 대가의 취득이라는 포크너의 본질적인 노동의 가치를 구체화해주는 인물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본질적 노동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발현됨으로써 주얼은 생산활동의 외재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 소외의 극복을 보이는 노동자의 한 사례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주얼이 개간한 40에이커라는 명확한 숫자는 예수가 광야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메시아(Messiah)로서의 각성을 위해 보낸 고난의 “40일의 금식”(Matthew 4:2)의 오마주와 같다. 즉 주얼은 단순 노동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인물로서, 고된 노동의 과정에서 독립적 노동을 수행했던 예수와 마찬가지로, 의식적 삶의 행위로서의 노동의 순기능을 통해 포크너의 가치를 가장 근본적으로 구체화된 형태로서 드러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애디가 물어 달라 부탁했던 “제퍼슨”(173)까지의 거리가 40마일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주얼이 포크너가 그려내려는 이상적 노동자의 상징이라는 맥락과 같은 궤를 보이는 숫자로서 의미와 기능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즉, 주얼은 단순한 자본주의적 노동을 위한 일반적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초월하여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예수라는 존재의 메시아적 기능과도 상응하는 노동 가치의 전도체로서 이상적 인물이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비단, 달과 주얼 뿐만 아니라 소설의 중심을 관통하는 노동의 범위는 구체적, 그리고 능동적 노동 참여를 보이는 번드런가의 모든 자식들에게로 확장된다. 우선, 장남인 캐쉬는 소설의 도입부로부터 근본적인 소설의 중추구조를 구성하는 “관”(5)을 제작한다.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톱질을 멈췄다. 마당에 선 그는 두 개의 널판자를 맞추고 있었다.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이었기에, 널빤지는 마치 황금, 부드러운 황금과 같았고, 측면에는 도끼날의 자국이 나있었다. 훌륭한 목수다. 캐쉬는. 그는 선반 위에 두 개의 판자를 얹고, 다 만들어진 관의 모서리부분과 가장자리를 맞췄다. 무릎을 꿇고 가장자리를 유심히 본 캐쉬는 다시 널빤지들을 내리고 손도끼를 들어올렸다. 훌륭한 목수다. 애디 번드런에게는 이 이상 편히 누울 수 있는 관은 없으리. 이 관은 어머니에게 분명 믿음과 안락함을 드릴 것이다. 나는 탁,탁,탁, 거리는 도끼의 소리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When I reach the top he has quit sawing. Standing in a litter of chips, he is fitting two of the boards together. Between the shadow spaces they are yellow as gold, like soft gold, bearing on their flanks in smooth undulations the marks of the adze blade: a good carpenter, Cash is. He

holds the two planks on the trestle, fitted along the edges in a quarter of the finished box. He kneels and squints along the edge of them, then he lowers them and takes up the adze. A good carpenter. Addie Bundren could not want a better one, a better box to lie in. It will give her confidence and comfort. I go on to the house, followed by the

Chuck. Chuck. Chuck.

of the adze. (4-5)

캐쉬의 관을 제작하는 노동의 단적인 일부분에 관한 묘사는 단순한 노동 이상의 상징성을 내포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례여정이라는 중심사건의 기초로서 캐쉬가 관을 제작하는 행위는 곧 농사에 있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관리자의 노동을 대변한다. 그와 동시에 중심인물이자 캐쉬가 “훌륭한 목수”임을 알아보는 노동 가치의 평가자인 달에게 있어 캐쉬는 의식의 인도자이기도 하다. 미성숙한 상태의 어린 양과 같은 달에게 캐쉬의 손도끼가 내는 소리는 파괴의 이미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안락함의 확신을 선사해주는 방패인 동시에 본인을 집으로 인도해주는 목자의 지팡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관이라는 어머니의 죽음을 완성시켜 줄 안식처를 제작하는 캐쉬의 모습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장례여정이라는 큰 틀의 노동이 소설의 시작과 동시에 촉발되었음을 강조해주는 것으로도 보인다.

장례절차의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의 제작을 담당했던 캐쉬는 여정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관에 대한 책임을 거두지 않는다. “균형이 맞지 않아”(96)라고 몇 번이고 읊조리는 캐쉬의 대사들은 단순한 관의 제작자이자 장남이라는 표면적 역할이상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한다. 앤스의 불합리한 무노동부터도 드러나듯이, 장례여정은 결코 톱니바퀴와 같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노동과정이 되지 못한다 “멋대로 앞부분을 들어 관을 옮기는 주열”(98)과 그를 말리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달이 보이는 갈등으로부터도 마차에 관을 실어 올리는 최초의 단계부터 그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캐쉬는 처음의 관의 제작자로서 관리자이자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노동자의 본질적 역할을 지속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균형”을 중시하며 사소하지만 긴 여정의 완성을 위해선 누군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관의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캐쉬의 존재감은 포크너의 노동 가치를 강조함에 있어서 중추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의 제작부터 관리와 수호의 역할을 수행했던 캐쉬의 노동들은 오롯이 자본주의적 노동의 영역으로 포용되는 형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애디의 장례여정의 끝에 캐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장례여정의 완성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보다 “축음기”(259)에 그 무게감이 실린다는 점에서 결국 장례여정의 일원으로 참여한 본질적 의도가 자본주의적 노동의 가치에 치우쳐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캐쉬는 관의 관리자이자 인도자, 균형의 수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노동의 생산물을 통한 “물질적 대가”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의 가치가 내재 되어 있는 노동의 수행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바더만은 형제들 중 가장 원초적인 노동을 통해 포크너의 가치관을 다른 형식으로 강조한다. 집안의 막내이자 표면적 순수함에 가장 근접해있는 인물인 바더만은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함께했던 유일한 아들이면서도, 유일하게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Hewson 558) 미숙한 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인물로 묘사됨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지만, 오히려 번드런가의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수적 노동을 수행하는 훌륭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게 무어냐?” 내가 말했다. “고기? 어디서 났니?”

“다리 아래쪽에서요,” 그가 말했다. 물고기를 뒤집자, 젖은 진흙에 범벅이 되었고, 고기의 눈도 흙에 뒤덮혀 있었다.

“그렇게 눅혀두려고 하니?” 앤스가 말했다.

“엄마에게 보여드리려고요.” 바더만이 말했다. 그 아이는 문을 쳐다 보았다. 그 때에, 사람들의 대화와 캐쉬의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있군요,” 그가 말했다.

“내 가족들이란다,” 내가 말했다. “그들도 그 물고기를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What’s that?” I say. “A hog? Where’d you get it?”

“Down to the bridge,” he says. He turns it over, the under side caked over with dust where it is wet, the eye coated over, humped under the dirt.

“Are you aiming to leave it laying there?” Anse says.

“I aim to show it to ma,” Vardaman says. He looks toward the door. We can hear the talking, coming out on the draft. Cash too, knocking and hammering at the boards. “There’s company in there,” he says.

“Just my folks,” I say. “they’d enjoy to see it too.”(30-31)

물고기를 낚아온 바더만은 단순한 오락으로서 낚시를 인식하며 잡아온 물고기를 기념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한, 즉 누워있는 어머니의 식사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제공하기 위해 낚시를 해온 것이다. 바더만은 낚시를 통해 근본적인 노동의 결과물로서 인간의 의식주적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함과 동시에 형제들 중 가장 이질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의 상징물을 노출시킨다. 각 인물들이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 추구했던 물질적 대가, 즉 주얼의 말과 캐쉬의 축음기와 같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자본주의적 가치를 대변해주는 바더만만의 상징은 일부 물고기로 함축될 수 있다. “내 어머니는 물고기다”(84)라고 독백하는 바더만의 의식은 처음 식사를 위해 잡아온 그의 물고기가 단지 한 끼의 식사를 위한 재료가 아니었으며 그의 어머니와 동일시될 정도의 상징성을 내포한 존재임을 잘 드러낸다. “내일이 되면 물고기는 조리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엄마는 그와 아빠, 캐쉬, 그리고 듀이 델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되어 숨을 쉴 거야”(67)라고 바더만은 물고기와 어머니를 거듭 동일시하는 사유를 보임으로서 캐쉬의 관과 같이 바더만은 본인만의 장례준비의 일환으로서 낚시라는 노동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공고히 한다. 또한 그가 잡아온 물고기는 식사로서 끝나는 재료가 아닌, 물고기가 상징해주는 어머니의 분신을 번드런 가족들의 내부로 주입하여 물질적 세계를 초월해 정신적으로 내재된 존재로써 애디와 그녀의 사유들이 가족들에게 존재하길 바라는 순수함의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이 식욕의 충족을 위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라는 물질적 대가를 위한 노동으로부터 출발한 바더

만의 낚시는 자본주의적 노동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바더만의 노동은 개인적 욕구만의 충족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한 물고기였다는 관점에서 바더만의 노동은 인본주의적 측면까지도 점층적으로 확대되어갈 수 있는 포크너의 노동 가치의 범위를 상징해주는 인물인 셈이다.

5. 인본주의적 노동과 소외 극복

5.1 사례 1: 바더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동이라는 관념의 가장 표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본주의적 노동뿐 아니라 포크너는 표면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노동의 심오한 목적에도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 목표, 즉 대가가 수반되는 노동이 아닌 순수함의 구체화에 더욱 접근해있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은 소외로부터의 위협과 동시에 극복의 기회를 선사받는다. 첫째로 포크너의 인본주의적 노동관이 투영된 번드런가의 자식들의 모습은 바더만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더만은 신에게 “시골 소년”(66)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의문을 품는 미숙한 의식을 보이는 소년이다. 하지만 바더만은 자신의 미약한 힘이나마 필요로 하는 노동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망설임 없이 노동을 수행한다. 바더만의 노동은 비록 미숙한 사유 과정을 통한 문제점의 인식에서 비롯된 노동의 의지였지만 분명한 의지의 발현이 즉각적인 실천과 함께 이뤄진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바더만은 셔츠를 입은 채로 방바닥에 쓰러진 수송아지처럼 누워 잠들어 있었고 관 뚜껑에는 수없이 많은 구멍이 나 있었다. 개쉬의 새 송곳은 마지막 구멍에 꽂혀있는 채로 망가져있었다. 관 뚜껑을 들어내 보니 애디의 얼굴위로 두 개의 구멍이 나있었다.

And the next morning they found him in his shirt tail, laying asleep

on the floor like a felled steer, and the top of the box bored clean full of holes and Cash's new auger broke off in the last one. When they taken the lid off they found that two of them had bored on into her face.(73)

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바더만이 관속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숨구멍을 만들어 준 것으로서 바더만의 미숙한 사유과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어머니가 숨구멍을 필요로 한다는 자신만의 결론이 내려지자마자 밤을 새가며 고된 노동을 하는 바더만의 모습을 구체화 한다. “내 엄마는 물고기다”(84) 라고 끊임없이 독백하는 바더만의 비현실적, 미성숙한 의식의 내면은 분명 관에 나있는 수많은 “숨구멍”의 시발점이었을 것이다. 끊임없는 내면 속의 불안과 미성숙함 속에서도 바더만은 매 순간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정의 준비과정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노동 이외에도 바더만은 어머니의 관을 싣고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도 실행력이 수반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관에 올라서려는 “새”(195)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고, 다리를 다친 캐쉬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어머니의 관과 그 곁에 누워 있는 캐쉬에게로의 무한한 새의 침범은 장례여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존재의 이미지로서 해석된다. 바더만은 그러한 새들로부터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매 순간마다 그 노동을 수행했다. “저놈이 엄마 위에 닿지 못하게 할 거야. 캐쉬형에게도 말이야”(195)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바더만의 의지표명은 분명히 구체화된 노동의 일환으로 치환되어 단순한 자본주의적 노동 안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화 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가 스스로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의 소외로부터 완전한 극복을 이룰 수 없다. 즉, 바더만이 새로부터 어머니의 관을, “장례여정”의 본질적 요소를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는 소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반증해주는 사례로서 J.D. 샐린저(J.D. Salinger)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를 예로 들 수 있다. 콜필드는 소설 속에서 바더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 절벽으로부터의 추락을 막아보리라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콜펠드는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그에 뒤따르는 “실천”, 즉 노동자로서의 능동적 노동이 부재됨으로써 노동의 외재적 요소로부터 소외로 귀결되고 마는 인본주의적 노동자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전형이다.

샐린저의 콜펠드는 소설 속에서 사회로부터 노출된 “순수함”을 직접적 노동과 의지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것이 아닌, 역으로 이미 구체화된 순수를 세속성의 침범으로부터 사수함으로서 본인의 의지와 노동을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콜펠드는 워즈워스의 시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무지개를 바라보고 느끼는 순수함과 동일한 감각의 수호자로서 노동의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콜펠드는 순수함이 결여된 세속성의 상징인 “어른”이 부재하는 이상적 공간 속에서 자신이 순수한 “아이들”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즉 순수함과 세속성의 경계에 서서 아이들이 순수함의 영역 밖으로 나가 세속성의 침범을 맞이하는 상황으로부터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내가 상상하는 건, 많은 아이들이 넓은 호밀밭에서 뛰어놀고 있어. 수천명의 어린이들 사이에 어른이라고는 나 혼자 뿐 인거지. 그리고 나는 깎아내리는 절벽의 경계에 서있을 거야.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은 절벽 너머로 떨어지려는 아이들을 잡아주는 일이야.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정신없이 달리다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잡아주는 거야. 하루 종일.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거지.

I keep picturing all these little kids playing some game in this big field of rye and all. Thounds of little kids, and nobody's around - nobody big, I mean - except me. And I'm standing on the edge of some crazy cliff. What I have to do, I have to catch everybody if they start to go over the cliff - I mean if they're running and they don't look where they're going I have to come out from somewhere and *catch* them. That's all I'd do all day. I'd just be catcher in the rye and all. (Salinger 191)

절벽의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콜펠드의 의지는 마치 워즈워스의 아

이처럼 순수함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동일점을 보이지만 콜펠드에겐 워즈워스와는 달리 세속성의 침범이라는 위협이 존재했다. “절벽”(Salinger 191)은 곧 세속성의 위협이며 순수한 존재인 아이들은 그 위협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디로 향했는지 모르는”(Salinger 191)곳에 도달하게 되며 그곳은 결국 세속성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절벽 너머로 추락한다는 것은 곧 세속성의 침범을 의미하고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콜펠드는 의식적 노동을 통해 파수꾼이 되어 자신의 의지 속의 영역인 호밀밭의 파수꾼이 됨으로서 순수함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세속성의 침범과 직면한 콜펠드가 세속성을 제거함으로서 순수함을 구체화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실천력이 곧 노동이며 구체화를 위한 도구이다. 다만 콜펠드에겐 사회의 곳곳에 만연한 세속성의 침범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서 순수함을 이룬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순수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의 도구화과정이 지극히 충동적이었으며 동시에 도달 불가능의 이상향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순수함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식적 기능이자 도구로서 노동은 의지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다. 의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실천력을 바탕으로 한 특정 형태의 노력이 수반될 때에 의지는 그 기능을 다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순수함의 구체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분명한 의식적 의지를 바탕으로 파수꾼, 즉 노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콜펠드는 그에 따른 책임감을 완수하지 못한다. 의지를 맺고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자신의 동생 피비를 만나러 간 학교에서 벽에 써진 “떡 유”(Salinger 221)라는 낙서를 발견하면서부터 콜펠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불가능한 일”(Salinger 222)이라고 인식하면서 낙서를 지우기를 거부함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주어진 첫 번째 난관에서 도구로서 노동의 수행을 포기한다. 그리고 콜펠드가 스스로 세속적 존재들이라고 여긴 기성세대들이 운영하고 치료하는 “정신병원”(Salinger 234)의 치료과정을 수용하였다는 점은 더 이상 그가 세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함의 파수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했고 동시에 콜펠드의 경우, 그의 순수함의 구체화를 위한 의식적 노동자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사라진다.

이러한 콜펠드의 실천력의 부재 및 의식적 노동자로서의 실패 과정 역시 마르크스의 노동의 소외개념을 통한 해석이 가능하다. “노동자에게 외재적”이라는 점을 통

해 기성세대들이 구성하는 사회의 단면을 경험한 콜필드는 그 안에서 인본주의적 가치로서의 순수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에 몰래 찾아간 그의 앞에 순수함의 상징인 피비를 만나고 나서(Salinger 175) 자신이 되리라던 파수꾼의 개념을 처음 고백한다. 콜필드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지형성의 과정에 마르크스의 개념을 대입해 볼 때, 콜필드의 “파수꾼”이 되겠다던 노동의지는 콜필드의 자발적인 의식으로부터의 실천적 의지가 아닌,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노동의 소외를 야기하는 자본가의 존재와 같이 콜필드가 바라보고 경험한 사회 속 병폐로 존재하는 기성세대들의 세속성을 통해 강압적 결심을 통한 의지였으며 이를 통해 강제된 노동 안에서, 낙서를 지워야만했던 콜필드는 필연적으로 불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콜필드는 스스로의 인본주의적 노동으로부터 “객체화” 당하게 되며 필연적인 소외로의 추락을 향하게 된다.

노동의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으로 응결되어 버린, 물질이 되어버린 노동이다. 즉, 그 노동은 노동의 객체화이다. 노동의 실현은 그것의 객체화인 것이다. [. . .] 노동자의 그의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는 그의 노동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외재적인 존재가 됨을 뜻할 뿐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 밖에 그에게 이질적인 것으로서 독자적으로 존립함을 뜻하며 또 그것이 그 자체로 그에게 맞서는 하나의 힘이 됨을 뜻하는 것이다.

The product of labor is labor which has been congealed in an object, which has become material: it is the objectification of labor. Labor's realization is its objectification. [. . .] The alienation of the worker in his product means not only that his labor becomes an object, an external existence, but that it exists outside him, independently, as something alien to him, and that it becomes a power on its own confronting him. (Marx 69-70)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소외”의 한 종류로서 생산물로부터의 객체화과정은 “파수꾼”이라는 지극히 충동적이었으며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었던 노동의 성질을 콜필드로 하여금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콜

필드의 노동이 결국 이상적이었음은 그 노동의 생산품, 즉 파수꾼으로서의 노동이 야기하는 추상적 인본주의의 수호가 즉각적인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음이 작용한 것이다. 자신의 용기와 고된 노동이 가시적인 결과를 수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낙서를 지우던 콜필드는 무한한 세속성의 침범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결정적 소외감을 느끼며 쉽게 포기하고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천력의 부재로 낙서를 지우지 못하며 인본주의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파수꾼이 되지 못한 콜필드의 명제는 필연적인 소외화 과정으로 연결되었을 노동자의 사례로서 분석할 수 있다.

실천력, 즉 즉각적인 노동이 동반되지 않는 의지적 사유는 구체화되지 못한 채 소외로의 침식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실천력이라는 요소는 바더만에게도 동일한 인본주의적 가치 수호를 위한 “파수꾼”으로의 의지발현과 함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하지만 바더만은 분명 콜필드와는 다른 종류의 결말로 구체화된다. 바더만은 다시 한 번 “오늘밤 우리가 헛간에 있는 동안 새들은 어디 머무는지 알아 봐야지”(211)라는 다짐을 하였고 실제로 달의 방화를 목격했던 한밤중까지 잠을 자지 않으며 헛간을 지켰다. 헛간은 어머니의 관이 뉘어져 있는 수레가 있었고 다리를 크게 다친 캐쉬가 머무는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요구되는 약자들의 공간이었으며 계속해서 침범한다고 인식되는 새의 존재는 바더만에게 있어서 큰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어린 바더만은 위협이 되는 존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는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바더만이 이와 같이 어머니의 시체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고 때로는 직접적 침범을 보이는 새들의 존재를 위협적인 침범자로 인식하는 것은 마치 관속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구멍을 만들었던 바더만만의 미숙한 사유의 한계점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바더만의 노동은 비록 미숙한 인식력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에 상응할 정도로 농도 짙은 실천력을 가지고 노동을 실천함으로써, 의식적 삶의 행위로서의 노동의 순기능의 구체화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포크너가 추구하고자 했던 여러 갈래의 구체화된 노동의 일환으로서 인본주의적 가치의 고결성의 수호를 위한 노동이었으며, 매 순간마다 어린 바더만의 노동은 순수함의 구체화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더만은 추가적인 인본주의적 노동이 부재된 캐쉬와 달리 소외로부터

의 최소한의 극복 잠재성이 내재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5.2 사례 2: 달

결말로 향해가는 소설의 구성 속에서 애디라는 상징성에 상응하는 노동의 가치를 찾아본다면 역시 달의 경우가 우선일 것이다. 침대에 누워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 중 달만큼은 유일하게 말을 아끼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가만히 응시하는 달의 눈빛은 결코 무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코라부인(Cora)의 사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녀는 달이야말로 애디의 “진정한 사랑”(24)이었다는 확신을 보인다. 겉으로 드러났던 주얼에 대한 애디의 사랑이 아닌, 보다 깊은 “사랑과 자비”(24)를 그녀는 확신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도록,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멀리 보내려고 하는 점도,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말이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 볼 뿐이었다.

“도와줄까, 달?” 듀이 델이 부채질을 멈추지 않은 채, 빠르고 경계하는 어조로 달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저 지켜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다. 가슴 속에는 수많은 말을 담아두었을 테지만.

He just looked at her, not even coming in where she could see him and get upset, knowing that Anse was driving him away and he would never see her again. He said nothing, just looking at her.

“What you want, Darl?” Dewey Dell said, not stopping the fan, speaking up quick, keeping even him from her. He didn't answer. He just stood and looked at his dying mother, his heart too full for words.

(24 - 5)

달의 침묵은 표면적인 이해와 묵인의 의미 이상을 내포한다. 오히려 달이란 존재

는 코라 부인의 독백과 같이 진실된 사랑과 자비를 지닌 존재로서 누구보다도 애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존재, 즉 포크너가 소설의 뿌리로부터 추구했던 문제의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러한 달의 침묵은 그만이 가능한 추모의 방식이자 애디의 삶으로부터의 죽음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묘사되는 노동에 관한 의지와 의식으로부터의 “궁극적 소산”이었던 것이다. 즉, 달에게 있어서 애디의 죽음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소설의 중심사건인 장례행렬과 관련된 스스로의 의지와 의식이 달의 노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실천은 곧 포크너에게 있어서, 그리고 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노동 가치의 구체화를 위한 도구이므로 결국 애디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의 달의 침묵은 그 어떠한 문자와 음성보다도 더욱 깊고 다양하며 큰 의미의 전달방식이고 애디로 대표되는 노동의 가치의 계승자로서 곧 달이 낙점되었음을 소설의 초반부터 인식하게 한다.

동시에 소설의 도입부로부터 시작된 포크너의 노동의 가치가 투영된 달의 노동자로서의 의지 및 의식이 초기 진행의 단계에서 점점 구체화의 단계로 나아감을 상징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달은 포크너의 자아가 반영된 분신과 같은 존재로서 내면적 사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인물인 동시에, 보편적인 의식적 사유자의 경지를 넘어서서 애디라는 본질적 노동의 가치 대변자와의 의식적 교류를 보이는 인물로서, 일반적 노동자의 단계를 초월해낸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주열과 캐쉬, 바더만과는 차별화되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부터 추진되는 노동을 보이는 달은 반사회적 성향이 바탕이 되어 알고 있는 자로서의 초월자적 모습을 보이는 노동을 행한다. “모든 사람들은 비겁하고 편협함을 선호하는데 이는 겉으로는 더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이다”(134)라는 말을 하는 달은 숭고한 어머니의 장례여정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해주는 여정 속에서 각 인물들에게 숨겨져 있는 순수한 장례여정 외의 숨은 목적들의 종결을 위해 “어머니의 관에 불”(219)을 지른다. 달은 어머니의 장례여정 그 자체만으로 인본주의적 노동의 가치만이 함유된 노동으로서 인식하였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서 자신과 같은 태도를 찾지 못한다. 결국 달은 “방화”(219)를 행함으로써 타락된 가치로부터 노동을 종결지으려 했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내달리던 그는 곧이어, 소리 없이 폭발하는 함석으로부터 정교하게 잘려 나온 납작한 조각처럼 몸이 튕겨 올랐다. 그와 동시에 헛간은 화약이 가득했던 냥, 일순 화염에 불타올랐다. 입체파 그림에 등장하는 벌레와 같이 톱질 모탕 위에 놓인 납작한 사각형의 관을 제외하고는, 입구에 사각으로 구멍이 나있는 헛간의 앞면이 흰히 드러나 보였다. 나를 따라 아버지, 길레스피, 맥, 듀이 델, 그리고 바더만이 급히 집 밖으로 나왔다. [...] 말들이 발버둥치는 소리는 화염의 소리에 집어삼켜졌다. 흡사 말과 화염이 내뿜는 소리는 마치 끝없는 기차가 끝없는 교각을 건너는 소리와 같았다.

For an instant longer he runs silver in the moonlight, then he springs out like a flat figure cut leanly from tin against an abrupt and soundless explosion as the whole loft of the barn takes fire at once, as though it had been stuffed with powder. The front, the conical facade with the square orifice of doorway broken only by the square squat shape of the coffin on the sawhorses like a cubistic bug, comes into relief. Behind me pa and Gillespie and Mack and Dewey Dell and Vardaman emerge from the house. [...] It plunges and kicks, the sound of the crashing blows sucking up into the sound of the flames. They sound like an interminable train crossing ad endless trestle. (218 -219)

애디의 장례여정은 주열과 달을 제외한 번드런가의 인물들에게는 각자의 부가적인 의도를 달성키 위한 여정이었으며 어머니의 관을 옮겨가는 여정이 주목적이 아닌 부가적인 형식적 노동의 일환임을 알고 있는 달은 노동의 순기능을 상실한 여정 속에서 노동의 도구이자 수단이었던 어머니의 관을 소멸시키려 관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달의 노동은 분명 다른 가족들의 노동과는 달리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노동으로서 본질적으로 애디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는 점으로부터 야기되었다. 달의 경우는 미성숙했지만 분명한 의지, 그리고 뒤따르는 노동이 즉각적으로 화합된 형태로 수행되었던 바더만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의 경우는 “파수꾼”이 아닌 “파괴”를 통한 가치실현이라는 맥락의 노동이다. “화염”을 통한 애디의 관의 소실은 장례여정이라는 표면적 노동

의 형태가 일순 사라지게 함으로서 개인적 욕망들의 소멸로 연결된다.

“화염”을 통한 소멸을 의도한 노동의 경우는 진 리스(Jean Rhys)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의 앙투아네트 코즈웨이(Antoinette Cosway)의 최후와 묘한 접점을 선사한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소설인 『제인 에어』(*Jane Eyre*)에 등장하는 인물인 “광녀” 버사 메이슨(Bertha Mason)의 관점에서 새로 집필된 소설이다. 앙투아네트는 소설에서 스스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적과 문화, 성별과 공간적 요소들로부터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고 감금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광기에 사로잡힌 버사로 타락하게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개인의 모든 정체성이 상실되는 과정 속에서 타락해가던 앙투아네트의 의식은 무기력하게 변화와 억압에 순응하지 않는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다. 그녀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들은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 열쇠를 집어 들고서 잠긴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선 내 손에는 촛불이 있었다. 비로소 지금에 와서야 어째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어디선가 새어 들어온 바람이 있었는지 촛불이 흔들거렸고, 일순 나는 불이 꺼진 줄 알았다. 그렇지만 내 손으로 바람을 막아 촛불을 지켜주었고, 촛불은 다시 한 번 불타올랐다. 내 어둠으로부터 내 나아갈 길을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말이다.

I waited a long time after I heard her snore, then I got up, took the keys and unlocked the door. I was outside holding my candle. Now at last I know why I was brought here and what I have to do. There must have been a draught for the flame flickered and I thought it was out. But I shielded it with my hand and it burned up again to light me along the dark passage. (Rhys 124)

『제인 에어』에서 불을 지르고 사라지는 버사의 전말은 이렇듯 앙투아네트 스스로의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의식 내면으로부터 야기된 능동적인 절망적 상황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노동의 일환인 것이었다. 의지표명의 원인은 달과 앙투아네트 사이에 큰 괴리를 보이지만 공교롭게 서로의 인본주의적 가치 추구를 위한 노동의

형태는 “방화”를 통한 현실로부터의 소실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앙투아네트는 에드워드 로체스터(Edward Rochester)로부터 “버사”가 아닌 “앙투아네트”로서의 자신을 되찾기 위한 노동으로서 소멸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마치 포크너의 의식의 대변자로서 소설 속 기능을 실행했던 애디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장례여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변질되어버림으로써 노동의 동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인식한 달의 노동의 경우와 흡사한 것이다. 즉 앙투아네트와 달은 서로의 노동을 통한 객체의 소멸을 의도하고 그 위에서 소멸이라는 절망적 성질과 동시에 완전무결한 “무”를 야기하는 상황을 통해 역설적으로 희망적 새 출발이자 “밝은 빛”으로의 기능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앙투아네트의 노동은 본인의 죽음을 야기하며 마무리되게 되었고, 달의 노동은 애디의 의식의 계승과는 달랐다. 파괴를 자행했던 달의 노동의 당위성에 대한 포크너의 의식의 대변자인 동시에 변화하는 남부사회의 혼란으로부터의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애디의 대답은 포크너의 다른 소설인 『압살롬, 압살롬!』(*Absalom, Absalom!*)의 결말에서 쿠엔틴 콕슨(Quentin Compson)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아니, 아니야. 나는 미워하지 않아!”(Faulkner 1991, 303)라는 의지 표명으로 몰락해가는 “남부”를 왜 미워하냐는 질문에 응수했던 그의 답변은 곧 포크너의 의식이며 애디의 마음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남부의 죽음으로 인식된 『압살롬, 압살롬!』의 결말과 병행적 위치에서 죽은 채로 누워있는 애디라는 상징성은 죽어있는 표면적 상태와 달리 끊임없이 노동을 추구한다. 마치 앙투아네트의 방화로 부터 그녀가 스스로 더 이상의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과는 달랐다. 탈출인 동시에 기회의 상실로 연결되어 앙투아네트와 달은 모두 스스로를 궁극적인 주체로서 인식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주체의 상실은 곧 노동의 “객체화”를 통한 소외로 연결되게 된다. 결국 파괴라는 선택으로 인해 달은 『내 누워 죽어갈 때』에서 훌륭한 노동자이자 소외로부터도 자유로운 이상적 포크너의 노동의 가치 전달자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된다.

달의 파괴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안에서의 무의미한 저항에 불과했으며, 사회의 변화, 시대의 흐름,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계급사회로의 전진은 파괴할 수도, 거부할 수도 그리고 회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달의 고등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던 필사적 노동의 내막은 개인의 역량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인 시대로부터의 역행적 노동을 이었던 것이다. 결국 달은 조소와 함께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경찰은 주얼을 때어내려 했고, 달은 그곳에 앉아 큰소리로 웃었다.

나는 그에게 말하려 했다. 만일 내가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최소한 일어설 수만 있었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말하려했지만 그는 웃음을 그치고 나를 쳐다보았다.

“형 내가 가길 바라는 거야?” 달이 말했다.

“너에게는 그게 더 좋을 거야.” 난 답했다. “그곳에선 좀 더 조용하고 귀찮게 하는 일들도 없을 거다. 너를 위해선 그 편이 더 좋을 거야, 달.”

“나를 거라고?” 달이 대답하곤 다시 웃기 시작했다. “더 낫다라,” 달은 말을 이어간다. 달은 너무 웃느라 말을 이어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웃기만 했다. 처참했다. 너무나도 처참했다. 웃을 일이 결코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땀과 그 결실로 이루어낸 것들이 타인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어버린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인가?

The other fellow pulled Jewel off of him and he sat there on the ground, laughing.

I tried to tell him. If I could have just moved, even set up. But I tried to tell him and he quit laughing, looking up at me.

“Do you want me to go?” he said.

“It’ll be better for you,” I said. “Down there it’ll be quiet, with none of the bothering and such. It’ll be better for you, Darl,” I said.

“Better,” he said. He begun to laugh again. “Better,” he said. He couldn’t hardly say it for laughing. He sat on the ground and us watching him, laughing and laughing. It was bad. It was bad so. I be durn if I could see anything to laugh at. Because there just aint nothing justifies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what a man has built with his own sweat and stored the fruit of his sweat into.(238)

결국 달이 파괴할 수 없었던 변화해가는 사회로부터 달은 격리당해야만 했다. 그

동안 축적되었던 달의 노동의 대가는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달로 대변되는 변화해 가는 사회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탈자들에게 있어서 급격한 산업화와 자본의 도입은 그들의 “소외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필연적 소외화라고 일컬어지는 이탈자들에 대한 포크너의 사유는 만형 캐쉬의 달에 대한 최후의 위로로서 투영된다. 그저 묵묵히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를 택했던 힘없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의 무의미한 저항에 대한 만형으로서 캐쉬의 입장은 중립적 입장에서로부터의 “좀 더 나올 것이다”(238)라는 전해질 수 없는 위로의 말과 같은 모호함이었다.

더불어 시대반영적 관점으로부터 달의 추락을 분석해보면, 그가 1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전선”(254)의 참전용사였으며 그로부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고통 받는 군인이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그가 전선에서 얻었던 “쌍안경”(254)을 통해서만 오직 “여성과 돼지의 뒷모습”(254)만을 볼 수 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묘사는 달이 눈앞에 보이는 정면이 아닌 전선에서 얻었던 내면적 사유의 한계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왜곡된 이면만을 보게 되었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포크너는 시에 집중하던 와중, 1925년을 기점으로 소설로 전향한 뒤로 때때로 전장으로 부터 귀환한 군인의 이미지를 활용(Phillip Gordon 476)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세계 1차 대전은 그의 소설가로서 작문의 첫 번째 시상이 되어주었으며 전쟁과 그로 인해 남부에 미친 영향들(David A. Davis 438)을 통해 초기 소설들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달의 전쟁경험은 단 한줄의 묘사임에도 노동자로서 끝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최후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전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변해갔으며, 철저히 파괴되어버린 남부인들의 기존의 노동에 관한 가치와 인식으로부터 흘러왔던 전통적 남부사회구조 속 농업 중심적이었던 노동의 역사는 달의 퇴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구조인 산업화과정의 거대한 톱니바퀴의 맞물림 속으로 사라졌음은 자명하다.

5.3 사례 3: 주얼

인본주의적 노동의 가치는 장례여정 도중, 물살이 강한 여울목을 건널 때의 위기 속에서 가감 없이 발휘된다. 어머니의 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울목을 건너던 중,

갑자기 흘러온 통나무에 부딪히며 “마차가 뒤집히게”(148) 된다. 이로 인해 장례여정이라는 소설의 큰 맥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애디의 관이 물살에 떠내려갈 뻔한 상황이 야기된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캐쉬는 그 관을 놓치지 않는다. 줄곧 “균형이 맞지 않아”(144)라는 말을 반복해오던 캐쉬에게 있어서 애디의 관은 줄곧 수호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눈은 감기고 얼굴은 회색으로 변해버린”(156) 캐쉬는 급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에서 신체의 손상을 개의치 않고 관을 지켜낸다. 하지만 그 와중에 캐쉬의 연장들이 모두 물살에 떠내려 가버렸다. 그 순간 주얼이 물속으로 뛰어 든다.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의 강한 “폭력의 흔적”(157)과도 같았던 물살 속으로 말이다. 모든 것이 소실될 뻔한 물지옥 안에서 캐쉬는 자신의 도구가 아닌 어머니의 관을, 그리고 주얼은 그런 캐쉬의 도구를 목숨을 걸고 구해낸다.

“주얼,” 버논아저씨의 크진 않았지만 무겁고 분명한 목소리가 물길을 따라갔다. 위압적이면서도 기지가 있는 목소리였다. “돌아오는 편이 나올 것 같구나.”

하지만 주얼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가 들어간 물 쪽을 지켜보며, 마치 불을 끌 물을 기다리며 호스의 주둥이를 잡고 있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밧줄을 쥐고 거센 물살을 가르며 서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등 뒤로 듀이 델이 나타났다. “주얼보고 돌아오라고 해줘.”라며 주얼을 크게 불렀다. 잠시 뒤 물위에 떠오른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강둑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갔다. 그 순간에도 물살은 사정없이 그를 아래로 떠밀고 있었다. “주얼!” 듀이 델이 다시 크게 부른다. 마침내 주얼은 헤엄쳐 강둑에 다다르고 기어 올라왔다. 그는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다. 분필을 찾아온 것이었다.

“Jewel,” Vernon says, not loud, but his voice going full and clear along the water, peremptory yet tactful. “It’ll be back here. Better come back.”

Jewel dives again. We stand here, leaning back against the current, watching the water where he disappeared, holding the dead rope between us like two men holding the nozzle of a fire horse, waiting for the water. Suddenly Dewey Dell is behind us in the water. “You make

him come back,” she says. “Jewel!” she says. He comes up again, tossing his hair back from his eyes. He is swimming now, toward the bank, the current sweeping him downstream quartering. “You, Jewel!” Dewey Dell says. We stand holding the rope and see him again the bank and climb out. As he rises from the water, he stoops and picks up something. He comes back along the bank. He has found the chalk-line. (160)

노새마저 삼켜버릴 정도로 강한 물살이었음에도 주얼은 망설임 없이 들어가 캐쉬의 도구들을 계속해서 수색했다. 주얼은 “캐쉬가 기뻐할 것”(159)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희생적 노동을 보인 것이다. 결코 주얼은 단순히 캐쉬의 도구가 캐쉬의 귀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된 작업에 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도구의 표면적 유물론적 인식의 이면에 내재된 노동자로서의 각성을 가능케 해준다는 의미에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즉, 도구가 물살에 쓸려간다는 것은 애디의 관을 만들던 그 순간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목수로서 캐쉬의 정체성이자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대변하는 노동의 수단이 분실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듯이 모든 정신적 가치들의 소실을 야기한 “물”로부터 노동의 가치를 구해내고 존속을 가능케 해준 주얼의 인본주의적 노동은 마치, “40일 동안 끊임없이 내린 비로부터 생물의 존속을 구해낸 노아”(Genesis 6-8)의 사례로 인식되어진다. 앞선 “40에이커”와 마찬가지로인 “40일”이라는 동일한 상징적 숫자로 구성된 고난으로부터의 극복이라는 연속된 연관성은 주얼이라는 존재가 포크너의 이상적 노동 가치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의 이상적 표상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주얼에게 있어서, 캐쉬의 도구는 캐쉬로 하여금 무한한 노동의 소외로부터 탈피의 가능성을 수호해 주는 도구이기도 했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소외로부터 탈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노동자로서의 확고한 생산 활동이 촉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노동으로부터의 “객체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얼이 목숨을 걸고 강물 속에서 건져 올렸던 것은 캐쉬의 도구인 동시에 포크너의 노동에 대한 가치의 수호인 셈이다.

그에 더해 인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포크너의 의도는 주얼의 노동을 통해서 사실상 완성된다. 달과 주얼은 어머니의 관을 그녀의 바람대로 제퍼슨으로 옮겨가는 여정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달은 그 의미의 부여로부터 절망감을 느끼고 소멸을 의도했다. 반면 주얼은 장례 여정의 위기의 순간, 자신이 “노동”이라고 일컫는 행위에 부여했던 의미의 본질의 퇴색을 목도하면서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작은 불빛에 의지하여 40에이커의 밭을 경작했던 주얼의 의식 속에 자리잡아있던 “말”과 같은 물질적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노동임에도 주얼은 스스로가 행하는 노동의 당위성에 반발하지 않았다. 이미 노동 가치의 수호를 위해 “물”이라는 고난의 장을 극복했던 주얼은 새로이 눈앞에 나타난 “불”이라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얼은 망설임이 없는 실행을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에 임하면서 포크너의 노동 가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달의 방화(218)로 인해 화염이 솟아오르는 마구간에 들어가 어머니의 관을 꺼내온다.

그리고 관이 탄력을 받아 앞으로 넘어지자 주얼이 드러났고 불꽃이 맹렬히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그의 위로 쏟아진다. 그는 마치 불의 후광에 뒤덮인 것처럼 보인다. 관은 계속해서 일으켜지고 잠시 멈추었다가 불의 휘장을 관통하며 쓰러진다. 그 위에는 주얼이 올라타 있었고 관이 땅위로 쓰러지면서 내동댕이쳐진다. 그리고 맥씨가 뛰어들어 고기가 타는 냄새를 풍기는 주얼에게 다가가 그의 속옷의 꽃무늬마냥 진홍색 구멍에서 커져가는 불을 끄기 위해 내려친다.

Then it topples forward, gaining momentum, revealing Jewel and the sparks raining on him too in engendering gusts, so that he appears to be enclosed in a thin nimbus of fire. Without stopping it overends and rears again, pauses, then crashes slowly forward and through the curtain. This time Jewel is riding upon it, clinging to it, until it crashes down and flings him forward and clear and Mack leaps forward into a thin smell of scorching meat and slaps at the widening crimsonedged holes that bloom like flowers in his undershirt.(222)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머니의 관을 지켜내는 주얼의 노동은 포크너의 노동 가치의 궁극적인 인본주의적 사례를 대변한다. “고기가 타는 냄새”(222)라는 묘사는 곧 주변에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면 주얼은 관을 구해낸 뒤 자신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극적 상황에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행한다. 자신의 살이 화염에 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불길로 뛰어든 주얼의 노동은 죽음을 담보하는 자세로서 인본주의적 노동의 구체화를 이루는 동시에 죽음을 극복할 정도의 의지를 통한 포크너의 노동 가치의 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을 통해 주얼은 자신의 분명한 의지와 노동이 고난의 순간마다 수반되게 되면서 인본주의적 노동을 수행하였고 노동 가치의 구체화를 성취하는 인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주얼의 이러한 태도는 곧 파괴의 원천이었던 불길마저도 “후광”(222)으로 비치게 하며 인본주의적 노동을 통해 소실의 위기로부터 재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한다. 곧 “소외”라는 노동자들의 소실된 스스로의 주체성로부터 인본주의적 노동을 보이는 주얼의 수호를 통해 소외의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상징해주는 대목인 것이다. 이는 노동의 순기능에 다시 한 번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애디의 죽음으로부터 포크너가 구체화하고자 했던 순수한 성질로서 존재하는 노동 가치로의 궁극적인 유도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러한 유도는 앤스를 통해 구성된 번드런가라는 작은 가족 구성원 안에서조차도 “자본”이 개입되어 변질되기 쉬운, “소외”가 발생하기 쉬운 비정상적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사회를 향한 달과 주얼 각각의 해법을 통해 보여지는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주얼의 역할이 수호자였다고 하여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구조의 옹호자라고 볼 수는 없다. 주얼은 어머니의 관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노동, 즉 장례여정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노력으로 인해 주얼 노동의 차별성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번드런가의 모든 인물들에게는 나름의 개인적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장례여정만을 순수하게 목적으로 했던 두 인물인 달과 주얼이었기에, 그 둘 중에서 끝까지 목적과 방향성의 변질이 없는 주얼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노동자로서, 변해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포크너가 제시한 노동의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의 해법을 제시해주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미지의 대조를 이용한 장치 이상으로 둘의 존재는 앞서 언급했던 마르크스의 “소외론”으로 자칫 잠식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변화하는 남부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큰 맥락에서 앤스는 애디라는 노동자를 고용했던 “자본가”인 동시에 캐쉬를 위시한 달과 주얼 등, 번드런가의 자식들의 아버지라는 단순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계급화 되어가는 사회구조의 심화 속에 등장하는 “자본가”이기도 하다. “자본주의하의 여성학대와 농업노동의 착취 사이의 연결점”(Matthews 150)에 주목했던 포크너는 세대와 성별의 계급화를 통해 우위를 점한 앤스의 모습을 통해 초기 산업화된 서구사회의 극단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었던 사회구조의 계급화를 상징한다. 마르크스의 소외론은 19세기의 중반을 배경으로 제시된 이론이었지만, 농업중심의 구조에서 근대화로 변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20세기 초 남부사회의 사회구조는 마르크스의 소외론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앤스에게 내가 죽거든 반드시 제퍼슨에 물어달라는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몰랐던 것과 같이 나 또한 내가 틀렸음을 몰랐었지만, 결국엔 아버지가 옳으셨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야,” 앤스가 답했다. “우리 아직 애도 충분히 가지지 못했어. 아직 둘 뿐인데.”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죽어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And when Darl was born I asked Anse to promise to take me back to Jefferson when I died, because I knew that father had been right, even when he couldn't have known he was right anymore than I could have known I was wrong.

“Nonesense,” Anse said; “you and me aint nigh done chapping yet, with just two.”

He did not know that he was dead, then. (173)

앤스는 번드런가의 가부장으로서 애디의 존재를 “자식의 끊임없는 생산”을 위한 노동자로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애디는 그녀의 자식들을 “대체 가능물로

써, 물물교환 및 지불을 위한 경제적 부재의 일부분”(Homer B. Pettey 39)으로 인식하며 “슈얼을 부정하기 위해 듀이 델을 넣고, 불륜을 통해 임신했던 슈얼에 대한 보답으로써 바다만을 임신”(176)한다. 그녀는 보편적인 어머니이자 전통적 농촌 사회구조 안에서 앤스가 의도했던 여성으로서의 전형화 된 역할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동시에 애디의 의식은 이미 앤스가 계급화하려는 사회구조 속 필연적 계급화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사유를 바탕으로 재도약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녀는 여성으로서도, 어머니로서도 그리고 단순한 노동자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사유의 주체가 되어 본질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남부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는 “제퍼슨”(173)으로의 귀환을 의도한다. 하지만 앤스는 그런 애디의 의식을 인식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앤스는 애디를 마치 아이를 생산해내는 공장의 노동자와 같은 취급을 할 뿐이다. 이러한 앤스의 묘사들은 소외를 야기하는 자본가의 전형으로 묘사되는데 앤스가 소설의 전반을 통해 행하는 탐욕과 위선은 “자본가들이 그들의 동기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수단들을 감추기 위해 쓰는 가면”(Ollman 153)이라는 점이다. 결국 앤스는 스스로를 “불행한 존재”(38)라고 인식하는 태도로부터 명백히 소외론적 관념 안에서 보여 지는 “자본가의 소외”(Marx 126)를 통해 자본가로 다시 한 번 인식되어지게 된다.

우선, 노동자에게서 소외의 활동(혹은 소원의 활동)과 같이 드러나는 모든 점들이 비노동자에게 있어서 소외의 상태(혹은 소원의 상태)로 드러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물과 생산(정신 상태로의)노동에 관한 현실적, 실질적 태도는 비노동자에게는 이론적 태도로서 드러난다. 세 번째로, 비노동자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반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에 반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First it has to be noticed that everything which appears in the worker as an activity of alienation, of estrangement, appears in the non-worker as a state of alienation, of estrangement. Secondly, that the worker's real, practical attitude in production and product (as a state of mind) appears in the non-worker confronting him as a theoretical attitude. Thirdly, the non-worker does everything against the worker which the

worker does against himself; but he does not do against himself what he does against the worker. (Marx 83)

마르크스의 이러한 자본가의 소외라는 분석을 통해 바라본 앤스의 전반적인 행위들은 결국 가족구성원 전체로부터 스스로의 소외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국 앤스가 이와 같은 피소외론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은 소외의 상태에 놓인 자본가와는 인간적 관계를 가질 수 없음으로, 역으로 자본가 또한 노동자들과 인간적 관계형성이 불가능”(Ollman 154)하다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며, 스스로를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사회구조로부터 “외재적 존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애디는 스스로 코라 부인으로부터 들었던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다”(173)라는 평가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본질적으로 앤스의 인식을 수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녀는 “나는 나일뿐”(174)이라는 독백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인물로서의 사유를 보임으로써 스스로의 노동의 가치를 더욱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애디는 소외된 노동자로서의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잠식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애디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용한 장례행렬의 목적지가 제퍼슨이라는 점이 더욱 소외론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인 애디의 성질을 드러낸다. “스스로 죽어 있는 상태란 걸 모르는 앤스”(174)를 극단적으로 “객체화”시키는 애디의 의식은 오히려 앤스보다도 굳건한 자본가로서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애디의 상징성은 철저히 외재적 존재이자 비노동자이면서, 소외된 자본가로 침식되어 버린 앤스의 반(反)노동자적 언행들로부터 극복을 이뤄내는 주얼로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다른 자식들은 불가능했지만, 더군다나 애디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24)이었던 달조차도 포기해야만 했지만 주얼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끝까지 노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주얼만큼은 앤스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디의 불륜으로 태어난 주얼인 만큼, 소외를 야기하는 자본가계급의 앤스와의 유대가 결여되어있는 존재로 볼 수 있으며, 오로지 어머니의 “따스하고 고요한 모유”(176)만이 그의 구성 물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단순한 이부형제라고 하여 성격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통점이라고는 애디의 독백과 같이 “대지로부터 끓어오른 거친 혈액”(175)관계로서의 성질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얼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앤스라는 자본가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노동자로 해석할 수 있다. 명백한 차이점을 보이는 주얼의 노동자로서의 의식은 자본가로서의 앤스의 착취가 행해질 때 그 가치를 극대화한다.

앤스는 미끄러지듯 힐끔 주얼을 쳐다본 뒤 시선을 떨어뜨렸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아시겠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또 없다는 걸.” 그가 말했다. 다른 이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고, 앤스는 그저 발과 다리사이만을 오가며 바라볼 뿐, 그 위로는 시선을 옮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말들말이다.” 앤스가 말을 이어갔다.

“무슨 말이요?” 주얼이 답했다. 앤스는 그저 서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되어 아들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꼴이라니.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컸는지에 관계없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리 못할 바에야 애비가 떠나야지. “제 말과 바꿨다는 말입니까? 지금?” 주얼이 말했다. [...] “말이오?” 내가 말했다. “지난밤에 앤스네 아들놈이 말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소. 지금쯤이면 아마 텍사스에 절반가량 다다랐겠지. 그리고 앤스는-”

Anse looked at Jewel, quick, kind of sliding his eyes that way, then he looked down again. “God knows, if there were ere a man,” he says. Still they didn’t say nothing. They just watched him, waiting, and him sliding his eyes toward their feet and up their legs but no higher. “And the horse,” he says.

“What horse?” Jewel said. Anse just stood there. I be durn, if a man cant keep the upper hand of his sons, he ought to run them away from home, no matter how big they are. And if he cant do that, I be durn if he oughtn’t to leave himself. I be durn if I wouldn’t. “You mean, you tried to swap my horse?” Jewel says. [...] “The horse?” I said. “Anse’s boy taken that horse and cleared out last night, probably half way to Texas by now, and Anse-” (190-1, 193)

앤스는 물난리로 인해 “떠내려 가버린 노새”(149)들을 대신할 “새로운 노새를 구입”(185)하려고 했다. “아내를 위하는 척”(185)하는, 즉 순수한 장례여정의 완성을 위한 노새를 구입하는 “척”하는 앤스였지만 가부장이 되어 자본가로 거듭난 뒤로 무노동으로 일관해온 그의 수중에 노새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자본은 일체 없었다. 결국 앤스는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자식들의 돈을 멋대로 “착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주얼의 말이 언급되기 직전, 이미 그는 “캐쉬의 옷에 들어있던 돈”(190)을 멋대로 취해갔다. 캐쉬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은 노동자로서 캐쉬의 생산물이나 다름없는 사유재산이었으며 노동의 대가인 “축음기”(190)를 구입할 돈이었다. 하지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앤스는 그 돈을 착취한다. 하지만 이미 몸도 성치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터무니없이 지쳐버린, 이미 오래전 소외된 노동자가 되었던 캐쉬는 무저항의 모습으로 자본가에게 순응이상의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얼은 달랐다. 스스로 고된 노동을 행했고, 그 노동의 대가로 축적한 사유재산, 즉 소중한 말을 자본가인 앤스가 멋대로 착취하게 두지 않았다. 순응하며 소외로 침식되어버린 일반적 노동자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순응이 아닌 탈피를 통한 극복을 꾀한 주얼은 “제퍼슨”으로 향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일반적 방향성으로부터 “텍사스”라는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객체화”로의 침식을 거부하는 능동적, 주체적 노동자의 성질을 가진 인물로 그려졌다. 자본주의적 노동과 인본주의적 노동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소외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의 가치를 수호해 나갔던 주얼은 마지막에 가장 완성된 형태의 “노동자”의 행보를 보인다. 주얼은 말을 타고 노동의 소외가능성으로부터 탈피가 아닌 극복 노력을 위해 “귀환”한다.

달과 주얼과 듀이 델과 그리고 나는 마차를 뒤따르며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주얼이 돌아왔다. 길을 올라온 그는 마차에 올라탔다. 그도 걷고 있었다. 주얼은 더 이상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얼은 내 형제다. 캐쉬는 내 형제다. 캐쉬는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우리가 그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었기에 더 이상 그는 아파하지 않을 거다. 캐쉬는 내 형제다. 주얼 또한 나의 형제이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다.

Darl and Jewel and Dewey Dell and I are walking up the hill, behind the wagon. Jewel came back. He came up the road and got into the wagon. He was walking. Jewel hasn't got a horse anymore. Jewel is my brother. Cash is my brother. Cash has a broken leg. We fixed Cash's leg so it doesn't hurt. Cash is my brother. Jewel is my brother too, but he hasn't got a broken leg. (210)

마차를 뒤따른 가족구성원에 주얼이 다시 포함되었다는 바더만의 묘사를 통해 결국 텍사스로의 탈피를 시도했던 주얼은 끝내 가족의 일원이자 제퍼슨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일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노동의 가치를 계승해주었던 애디의 곁으로, 남부사회와 포크너의 의식의 내면으로 귀환한 것이다. 그에 더해 주얼은 단순한 귀환만이 아닌, 여정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사유재산을 “희생”한다. 주얼은 여정의 완성을 위해 스스로 사유재산인 말을 포기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발로 걸기를 택한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객체화”시도를 하면서 소외로 유도를 하는 앤스로부터 도망갈 수 있던 주얼은 개인으로서의 노동자의 권리를 초월하여 절대적 권리의 행사권을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노동 가치의 완성을 위한 노동의 “존재적 당위성”을 택한 것이다. 즉 주얼은 자본주의적 노동을 통한 물질적 대가의 취득과는 상반된, 비물질적 대가를 위한 희생적 태도를 보이는 인본주의적 노동의 당위성을 위해서도 순수한 노동자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러한 주얼에 대한 묘사는 곧 사회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던 포크너가 변화해가는 남부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필연적 “소외”로의 침식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상적 해법이자 지향점으로서 주얼이라는 인물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6. 결 론

포크너의 노동 가치의 시발점은 소설 속 애디의 챕터에서 생전에 자신의 죽으면 “제퍼슨”(173)에 물어달라는 부탁이다. 앤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애디는 이미 아

버지의 가르침대로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의 생”(171)을 살아가는 중이었다. 애디는 변해버린 사회구조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수용하는 수동적 태도 일변도의 노동자가 아닌, 스스로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고향으로의 귀환, 전통적 노동가치로의 귀환을 꿈꾸는 동시에 사회구조적 신계급을 대표하는 자본가 앤스에게 다시 한 번 노동의 가치를 주입하려는 노력을 하며 능동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서 해석된다. 결국 애디의 삶의 자세는 곧 자본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발상가능성이 있는 소외개념으로부터의 “극복가능성”으로의 인도과정인 것이다.

다만, 소설의 결말에서 포크너는 희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당시 남부사회상의 구조적 괴리를 그려냈다. 『내 누워 죽어갈 때』는 노동을 통해 변화하는 남부사회의 소외라는 필연적 부작용으로부터의 해결책을 모색해오던 소설의 전반적 흐름과는 대조적이게 소외를 철저히 “이용”했던 자본가의 승리를 암시해주는 듯한 묘사를 보이며 끝맺음된다. 앤스가 줄곧 내면으로부터 의식해오던 자본가로서 스스로의 의지를 자식들의 노동을 통해 강제적으로 발현시킨 것이다. 새로운 틀니와 새로운 아내라는 아이를 낳아줄 노동자를 구한 것이다. 앤스는 자본가로서의 강력한 권위를 앞세워 듀이 델의 노동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10달러”(255)를 강제로 빼앗아간 뒤, 그 돈으로 “틀니”(260)를 새로 해 넣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번드런 부인”(261)과 함께 가족들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 번드런 부인을 자식들에게 소개해 보이면서 소설은 결말을 맞이한다. 앞서 애디의 챕터에서부터 자신의 부인을 “아이를 생산해내는” 노동자로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던 앤스이기에, 새로운 “번드런 부인”은 곧 새로운 노동자의 고용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뤼스 이리가레 (Luce Irigaray)의 말처럼 앤스는 애디와 새로운 노동자인 번드런 부인을 그저 “남성을 위한 전통적인 사용가치이자 교환가치로서의 상품”(Irigaray 368)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틀니와 새로운 노동자를 손에 넣었던 자본가 앤스는 결국 숭고한 노동가의 표상이었던 애디 “번드런”의 죽음을 통해 시작된 일련의 노동, 즉 장례여정 안에서 행해진 그의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착취해낸 생산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 것이다. “애디”라는 존재에 의미를 두고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결국은 그녀의 성(姓)이었던 “번드런”이라는 상징적 노동자의 명칭과도 같은 용어로 잠식되었음이 암시된다. 결국 애디가 궁극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표면적으로 유도해내며 모두에게 있

어서 노동의 소외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했던 노동 가치의 “계승”은 끝내 앤스라는 자본가에 의하여 노동 가치의 단순한 “교체”로서 끝맺음 되게 된 것이다.

그렇다하여 스스로의 의식 내면 속의 비관적 관점을 독자들과 공유해가며 포크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시대의 변화라는 표면적 요인의 피부아래 잠들어있는 초기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노동 가치의 무력함은 아니다. 혹은 농업중심사회구조에서 자본주의로의 사회구조적 변화라는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외면하고 단념하며 순환의 고리를, 즉 노동의 가능성을 소멸하려했던 달의 모습 또한 아닐 것이다. 그 대척점에 존재하며 소외를 유발하는 앤스라는 정신적 자본가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인간으로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본가로부터 자유로운 노동 가치를 소유한 채로 존재하는 순수한 노동자의 표상을 보여준 주얼이야말로 포크너의 분신이자 대변자와 같은 존재로서 『내 누워 죽어갈 때』의 이야기 속 노동에 대한 가치론적 사유의 온전한 거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포크너는 당시 남부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노동, 인본주의적 노동의 구분없이 현실의 본인에게 주어진 조건의 노동들을 행해가며 스스로 소외로부터 극복해 낼 수 있는 “주얼”의 노동의 가치관이 비춰지길 의도한 것이다.

포크너가 목도했던 20세기 초반의 남부사회는 전통적 사회구조의 전복과 동시에 불완전했던 초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구조로의 과도기적 시기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던 곳이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선 포크너는 『내 누워 죽어갈 때』를 통해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남부사회 속 수많은 개개인들이 지향점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이는 곧 주얼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축적을 위험만도 아니었으며, 무한한 과거로부터의 향수를 탐닉하며 회귀를 의도한 것도 아니다. 주얼의 노동과 포크너의 집필활동은 오로지 상황과 혼란을 핑계 삼지 않고 묵묵히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노동의 가치를 끊임없이 고수해가는 진정한 노동자의 자세를 대변한다. 즉, 스스로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매 순간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인본주의적 노동이라는 점인 동시에 개개인의 소외화 탈피를 위한 이상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인 용 문 헌

- Bertell, Ollman. *Alienation:-Marx's conception of man in capitalist society: 2nd.* New York: Cambridge up, 1976.
- Charlotte, Bronte. *Jane Eyre.* New York: Penguin Books, 2006.
- David, Minter. *William Faulkner: His Life and Wor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2.
- Davis, David A. "Introduction: William Faulkner and World War I" *Mississippi Quarterly* (72:4), 2020, 435-445.
- Fowler, Doreen. *Faulkner: Faulkner's Changing Vision: From Outrage to Affirmation.* Ann Arbor: UMI Research P, 1976.
- Harding, James. "Sweating on the Small Stuff: The Materiality of Form in Faulkner's *As I Lay Dying*." *The Faulkner Journal* (30:2), 2016. 41-67.
-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1.
-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Feminism: An Anthology of Literary and Criticism.* 2nd Ed. Ed. Robyn R. Warhole and Diane Price Herndl. New Jersey: Rusters up, 1997.
- Jean, Rhys. *Wide Sargasso Sea.*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0.
- Jerome, David, Salinger. *The Catcher in the Rye.* New York: Little Brown & Company, 1991.
- Jill, Bergman. "this was the answer to it: Sexuality and Maternity in *As I Lay Ding*" *Mississippi Quarterly* (49:3), 1996, 393-407
- John, Matthews. *William Faulkner: Seeing Through the South.*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2.
- Karl, Marx. *Capital,* Trans. Samuel Moore and Edward Aveling, vol. I .

- Moscow, 1958.
- _____.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Trans. T. B. Bottomore, in Fromm, Erich, *Marx's Concept of Man*. New York, 1963.
- Marc, Hewson. "“My children were of me alone”: Maternal Influence in Faulkner's *As I Lay Dying*” *The Mississippi Quarterly* (53:4), 2000, 551-567
- Petty, Homer B. “Perception and the Destruction of Being in *As I Lay Dying*” *The Faulkner Journal* (19:1), 2003, 27-46.
- Phillip, Gordon. “Faulkner in a Time of Pandemic: Tracing the Influence of the 1918 Influenza in His Works” *Mississippi Quarterly* (72:4), 2020, 467-483.
- Richard, Gray. *The Life of William Faulkner*.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1996.
- William, Faulkner. *Absalom, Absalom!*. New York: Vintage, 1991.
- _____. *As I Lay Dying*. New York: Vintage, 1991.

Abstract

William Faulkner's Value of Labor in *As I Lay Dying*

In *As I Lay Dying*, William Faulkner articulated inevitable ramifications of Southern agricultural society's transition into industrial stage, with specific focus on changing patterns of labor. Labor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life, but through drastic and fast social and economic change, one of the significant side-effects of early industrial structure, so called "Alienation" of Karl Marx appears to be prevalent in every layer of labor.

Labor, according to Marx, is basically external to workers, which causes those workers not to receive appropriate material and spiritual rewards for their labor. In *As I Lay Dying* Faulkner recreated similar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s to the time when Marx considered and targeted to create his theory "Alienation".

Addie Bundren, a main heroin of *As I Lay Dying*, lies dying in her bed and her imminent death and death will equally work as motivations for all the remaining family's labor. As representative Southern laborers, every family member experiences Marxian alienation from their long and troublesome journey to Jefferson to fulfill Addie's death will.

Through Addie's most beloved son, Jewel, Faulkner clarifies his authorial intentions for the possible ways to actualize the capitalistic and humanitarian values of labor. As Faulkner's hero in *As I Lay Dying*, Jewel throws himself body and soul into his work all the way to Jefferson to eventually overcome alienation.